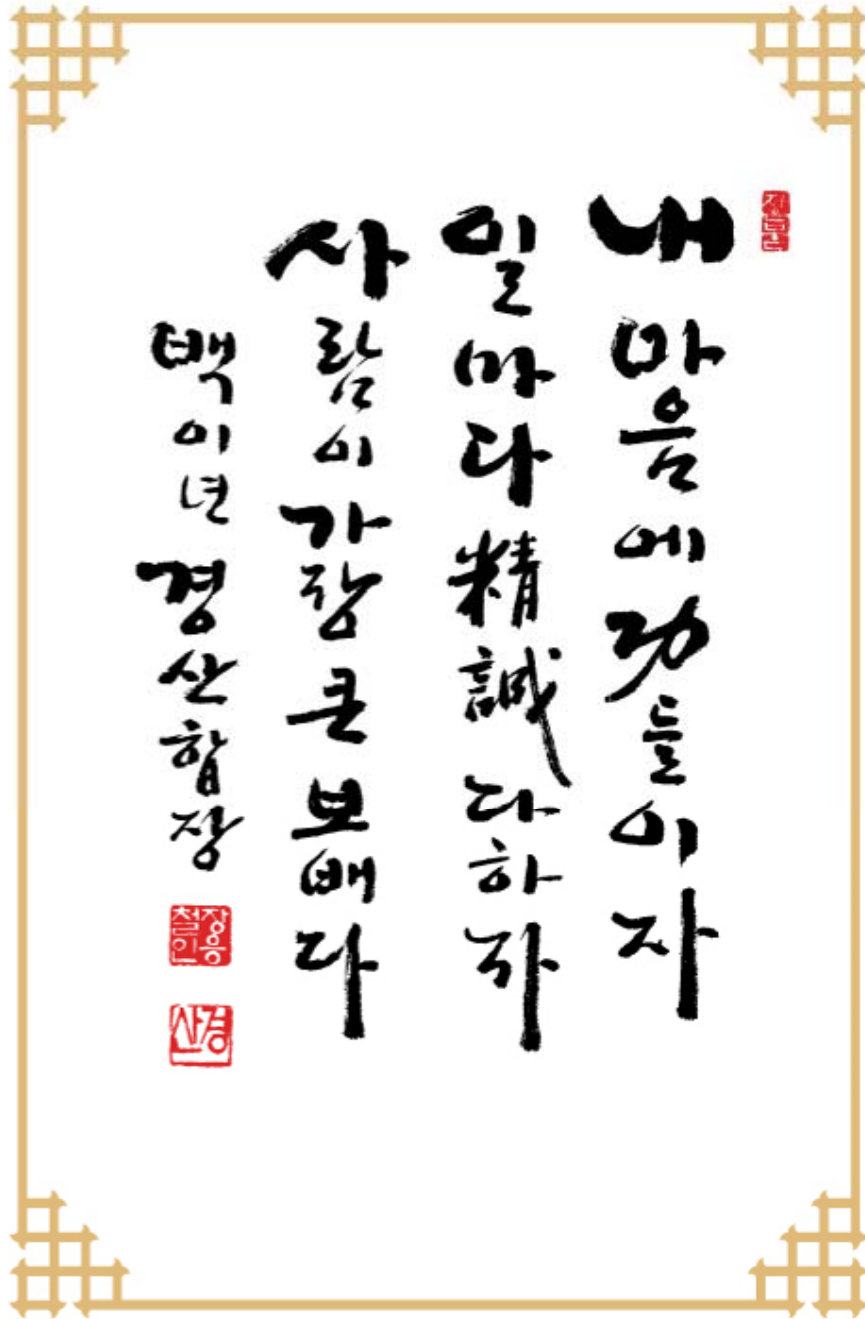


원기101년도 신년법문
성자가 되는 길



원 불 교



내 마음에 정들이자
일마다 精誠 다하자
사랑이 가장 큰 보배라

백이년 경산함장



성자가 되는 길

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고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. 전 인류와 전 국민과 교도님들 모두에게 법신불 사은의 가호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. 지난 한 해, 교단은 재가출가 교도님들의 일천 정성으로 개교 백주년 성업을 원만하게 마무리함으로써 희망차고 성스러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. 대환희로 맞이한 백주년은 결복기 대운을 열어갈 거룩한 성업이었습니다. 고맙고 감사합니다. 정유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다 함께 성자되기를 서원해야 하겠습니다. 미몽 속에 살던 우리는 소태산 대종사의 일원교법(一圓敎法)을 받들면서 성자가 되어야겠다는 결심을 하였습니다. 그 결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음에 공들이고, 일에 공들이고, 사람에 공들이는 데에 힘써야 합니다.

첫째, 마음에 공을 들입니다.

행복과 불행, 성공과 실패, 전쟁과 평화, 이 모든 것은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. 과거, 현재, 미래의 성자들은 마음 사용법을 깨달아 자기 자신의 마음에 공들인 분들입니다. 보통 사람들은 가치 있게 공들여야 할 마음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밖으로 부와 명예 등에서 행복을 찾아 헤맵니다. 밖으로 시시비비만을 따지며 그에 따르는 고통을 남의 탓으로 돌리기에 영생을 윤회의 고통 속에서 삽니다. 그러므로 소태산 대종사의 제자인 우리는 한 마음을 돌려 낙원세상을 열어가는 마음 사용법을 훈련해야 하겠습니다.

선(禪)을 하고 기도를 올려 마음을 고요히 하고 마음을 허공처럼 텅 비워 무엇에도 걸림이 없는 마음사용법을 단련해야 합니다. 봄처럼 따뜻한 마음을 낼 수 있는지, 여름처럼 열정적인 마음을 만들 수 있는지, 또는 가을처럼 냉정한 마음을, 나아가 겨울처럼 모든 것을 감추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 살피서 끊임없이 그때 그곳에 알맞은 마음을 낼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합니다. 마음에 공들임을 쉬지 않는 것이 정진이며 영원한 행복의 길이며 부처되는 길입니다.

둘째, 그 일 그 일에 공을 들입니다.

우리의 삶은 일의 연속입니다. 따라서 그 일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복을 받기도 하고 그 능력을 평가받기도 합니다. 사실 부처는 어떤 일이든지 다 잘하는 일의 달인입니다. 부처의 일정일동은 모두가 중생을 건지고 낙원

세상을 만드는 일입니다. 세상에 일하지 않는 부처는 없으며 일을 잘 못하는 부처도 없습니다.

우리는 누구나 소소한 언행에서부터 시작하여 가정 문제, 직장 문제 등 수많은 일 가운데서 살아갑니다. 그러므로 그 일 그 일이 서로에게 복이 되고 인류에게 평화 안락한 세상이 되도록 공을 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. 모든 일에는 반드시 그 일의 주제가 있고, 절차를 거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가는 과정도 있습니다. 또, 일과 일끼리는 서로 연결되어 복잡다단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따라서 그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성공시킬 것인지를 잘 연구하여 목적하는 대로 공들여야만 만능을 갖춘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.

셋째, 만나는 사람마다 공을 들입니다.

마음과 일에 공들이는 것은 모든 사람을 부처로 변화시켜 영원한 행복자가 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. 우리 주변에는 형제, 친척, 동료, 법동지들이 수없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. 그 인연들이 나를 부처로 만들어주고, 일을 성공시켜주며, 나의 목적을 이루게 해주는 동지이며 협력자입니다. 그러므로 만나는 모든 인연의 근기와 능력을 파악하고 그 주변을 살피서, 상생의 선연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. 서로 간에 얽히고설킨 업력을 벗어나서 부처가 될 수 있도록 만나는 사람마다 쉽 없이 공들여야 하겠습니다. 또한 나의 인연들이 나를 어떠한 존재로 여기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. 그리고 그 인연들이 나로 인하여 안심을 얻고 진급이 되고 은혜를 입도록 공을 들여야 합니다.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되도록 까지 공들이는 것이 낙원세계 건설의 본분이라는 것을 자각해야 합니다. 이 길이 바로 부처가 되는 길입니다.

지금 국가와 세계는 새로운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. 이 난관을 역사발전의 커다란 경중으로 삼아서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새로운 평화세상을 여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. 그리하여 사회, 국가, 세계에 새로운 질서가 정립되고 안정을 얻어서 평화 안락한 참 낙원 세계가 열리기를 기원합니다.

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내 마음에 공을 들이고, 일마다 정성을 다하며, 내가 만나는 사람이 가장 큰 보배임을 알아서 모든 인류가 부처로 진급되길 기원합니다.